

# 한국 남녀 골프군단 유럽원정 나선다

### 내일 '스칸디나비아안 마스터스' 개막 최경주·노승열 출전 '부진 탈출' 도전

한국골프군단이 22일(한국시간)부터 유럽원정에 나선다. '탱크' 최경주(40)가 22일 개막하는 유럽프로골프투어 스칸디나비아안 마스터스에 출전해 부진 탈출에 도전한다. 신지애를 앞세운 태극남자들도 22일부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예비안 마스터스를 시작으로 2주간 유럽원정을 떠난다.

최경주는 22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의 브로 호프 슬롯골프장에서 열리는 유럽프로골프투어 스칸디나비아안 마스터스에 나선다.

총상금 160만 유로가 걸려 있는 이번 대회에 초청 선수로 출전하는 최경주는 최근 새로운 퍼터를 들고 나왔지만 오히려 성적은 뒷걸음질쳤다.

6월 US오픈까지 미국프로골프 투어에서 15개 대회 연속 컷 통과의 꾸준한 모습을 보였던 최경주는 그림이 2개 장착된 특이한 모양의 퍼터를 잡기 시작한 존디어 클래식과 브리티시오픈 등 최근 2개 대회에서 모두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새로운 퍼터에 자세도 완전히 바뀐 터라 적응에 시간이 걸리는 탓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회에는 브리티시오픈 챔피언 루이 웨스트호이젠(남아공)도 출전한다.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바로 다음주 대회에도 모습을 보이는 것은 특이한 경우다. 브리티시오픈 우승자가 바로 유럽투어에 출전하는



〈최경주〉

〈노승열〉



〈신지애〉

〈안선주〉

것은 1995년 존 델리(미국) 이후 15년 만이다. 이 대회에는 노승열(19·타이틀리스트)도 출전해 시즌 2승에 도전한다. 3월 말레이시아오픈에서 우승했던 노승열은 최근 스코틀랜드오픈과 브리티시오픈에서는 모두 컷 탈락했다.

### 신지애·안선주·최나연 등 총 출동 에비앙 마스터스 등 2주간 원정길

여자골프군단은 알프스로 총출동한다.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 있는 에비앙-르뱅의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장(파72.6천344야드)에서 열리는 에비앙 마스터스는 세계 톱랭커 111명을 초청해 벌이는 잔치로 총상금만도 325만달러가 걸린 특급 대회다. 그린이 좁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해 한국골프장과 흡사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한 번도 우승컵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 우승컵을 위해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뿐 아니라 일본 무대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안선주(23), 전미정(28·하이트진로그룹) 등도 가세했다.

LPGA 투어 군단에서는 최나연(23·SK텔레콤)이 상승세다. 최나연은 지난 5일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에서 우승했고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랭킹 4위에 올라섰다. 최나연은 특히 2008년 이 대회에서 연장전까지 갔다가 켈렌 알프레드슨(스웨덴)에게 패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맹장염 수술을 받고 잠시 주춤했던 신지애(22·미래에셋)도 US여자오픈에서 공동 5위에 오르며 샷 감각을 완전히 회복했음을 알렸다. 일본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안선주와 전미정도 우승에 도전한다. 안선주는 올해 일본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2승을 수확하며 상금 랭킹 1위로 나섰고 전미정도 2승을 올리며 일본 무대를 호령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1인자 서희경(24·하이트)과 올해 대상 포인트와 평균 타수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보미(22·하이마트)도 출전한다. /연합뉴스



“오르는 길은 험경지만...국가대표 될래요” 30도를 넘는 가마솥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스키점프 선수들이 20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연습장을 힘겹게 오르며 꿈을 키워 가고 있다.

## 전남 이윤리 R2 공기소총 2관왕

## 신지애 4위 미야자토,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탈환

### 세계장애인사격 개인·단체 석권

### 남자부 장성원도 '세계신' 2관왕



(인천일반), 박영준(청주시청)과 세계신 기록인 1798점을 합작하며 우승, 대회 두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심재용은 본선 및 결선 합계 705.9점(600+

105.9점)으로 개인전 은메달을 추가했다. 앞서 대회 첫날에는 이윤리가 여자 R2 공기소총에서 합계 496.2점(393+103.2점)으로 개인전 1위에 올랐고, 단체전에서도 김민연(국민은행), 이유정(충남일반)과 함께 1173점으로 금메달을 따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한국은 대회 3일째인 이날까지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2위 중국을 따돌리고 종합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 '브리티시 돌풍' 정연진 606위

### 우즈, 남자부 267주 연속 1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과 다습,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1위를 달리는 미야자토 아이(일본)가 세계 여자골프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다.

19일 자 순위에 따르면 미야자토는 평균 10.2656점을 받아 10.265점의 크리스티 커(미국)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지난 6월21일자 순위에서 처음 1위에 올랐던 미야자토는 1주 만에 커에게 밀려 2위로 내려섰으나 3주 만에 다시 순위표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신지애(22·미래에셋)는 4위에서 변화가

없었고 3위 역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자리를 지켰다.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은퇴 이후 5월3일 자 순위에서 신지애가 1위에 올랐고 이후 6월21일 미야자토, 6월29일 커에 이어 다시 미야자토가 1위 자리를 차지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18일 끝난 일본여자프로골프 투어 스탠리 레이디스 골프토너먼트 우승을 차지한 안선주(23)가 30위에서 21위로 강추위였다.

남자 순위에서는 타이거 우즈(미국)가 267주 연속 1위를 지켰고 브리티시오픈 정상에 오른 루이 웨스트호이젠(남아공)은 54위에서 15위로 올랐다.

브리티시오픈에 출전했던 아마추어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정연진(20)이 606위로 처음으로 순위권에 진입했다.

/연합뉴스

## '피겨 전설' 미셸 관 새 갈라쇼 공개

### 23~25일 김연아 아이스쇼 참가

김연아(20·고려대)와 함께 오는 23~25일 아이스쇼에 나서는 '피겨 전설' 미셸 관(30·미국)이 새로운 갈라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특설링크에서 펼쳐지는 '삼성 애니콜 하우먼 2010 올댓 스케이트 서머'에서 관이 2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은 1부에서는 스코틀랜드 팝가수 애니 레녹스의 '프리티비브(Primitive)'

에 맞춰 자연의 아름다움을 연기하고, 이어 2부에서는 엘리샤 키스의 '노원(No One)'을 배경으로 도시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함께 무대에 나서는 곡민정(16·수리고) 역시 1부에서 파렐렐의 '개는 변주곡'에 맞춰 프로그램을 준비해 국내 팬들 앞에 선다.

이밖에 페어스케이팅 세계랭킹 1위 알리오나 사브첸코-로빈 즐코비(독일)도 소녀시대의 인기곡 '지(Gee)'를 배경 음악으로 선택해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 선명 안내

Grid of small text boxes containing various news snippets, advertisements, and local information.